



우리의  
家章

#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會長 沈宜洛  
編輯人：文化理事 沈載緒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7-9339  
FAX：(02)2269-7755  
印刷：청송그래픽스  
(02)2261-0772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 謹賀 2013(癸巳) 新年

### 新年辭



大宗會 會長 沈宜洛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밝은 계사년은 뱀띠해입니다. 뱀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 22만 종인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풍요와 번영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 4대국의 정권이 교체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제 또한 유럽의 위기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이어 무역규모 1조 달러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세계 7대 무역국가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세계 신용평가에서도 일본과 중국을 앞선다는 보도에 가슴이 뿌듯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가 2%라는 한국은행의 발표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듯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종회의 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대종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 4월 정기총회에서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국 종인 여러분께서 주신 지도편달과 지원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종회의 구조조정으로 매년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는 사실과 금년 즉 2013년이 우리 대종회의 장학사업 원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장학성금은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누차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종회의 수익사업은 국내외의 경제사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대종회의 사무실인 찬

경회관이 재개발 될 경우 2~3년간 임대 수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을 충당해야 합니다. 대종회의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최소한 장학기금 20억 원이 필요합니다. 장학기금 20억이 마련되면 그 자체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20억을 우리 종인의 성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낙관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종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일천 만원의 기탁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종회 조직의 핵심인 회장단과 전국 이사 여러분께서 평균 100만 원씩 기탁하면 3억 원이 되고 우리 전국 종인 7만 5천 가구의 약 60%인 4만 가구가 5만 원씩 기탁하면 20억 원이 됩니다.

저는 작년 12월 25일부터 시작한 구세군의 자선냄비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약 75억 원의 성금이 기탁되었는데 그 중에는 고액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고사리 손 등이 기탁한 1천 원에서 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심은 후에 시비와 제초 그리고 간벌 등 약 30~40년을 관리해야 동량이 되듯 사람도 20~30년을 길러야 영재(英才)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중은 문림광공 할아버지께서 청송에 마련하신 송림(松林)은 더욱 울창 할 것이며 또 함문지후공 할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깊은 연못(深淵)에서는 물이 넘쳐흐려 내(川)가 되어 그 넓고 넓은 주변 풍리지역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알찬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장학사업은 위문위국(爲門爲國)의 성업입니다.

존경하는 전국 종인 여러분!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장학성금 대열에 참여 합시다.

끝으로 이번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6년 이래 최저 기온이며 동·설해도 막심 할 뿐만 아니라 감기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전국 종인 여러분!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에 가름합니다.

2013(癸巳)년 元旦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拜

## 謹賀 新年

일가여러분! 癸巳 새해에도 家內에 萬福이 가득하시고 萬事亨通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 顧問：魚澤 庚周 宜燮 晶求 載鴻 載榮
- 指導委員：宜斗 相弼 相明 達燮 允宗 龍俊 勳鍾 大平 漢垓 宇永
- 名譽會長：斗燮
- 會長：宜洛
- 副會長：相郁 相殷 相德 相和 贊求 完求 甲輔
- 監事：載冕 春植 載烈
- 執行部：總務理事 載根 財務·文化理事 載緒
- 有司：青松：能光 遠燮 咸悅：正秀 安城：光澤 漣川：良燮 淸州：載龍
- 理事：(서울) 宜杓 勇鎭 重澤 相默 相學 相翰 相慶 相祚 相烈 暎求 泰燮 佑燮 亨求 奉燮 載求 百燮 星求 光燮 光燮(대치동) 正燮 洪燮 雄燮 容圭 完圭 三圭 載洪 載金 殷植 元植 載澈 載德 愚夏 愚龍 春輔 光輔 英輔 昌輔 勳輔 種福 賢輔
- (釜山) 宜景 相均 成燮 載德 載榮 萬仁
- (大邱) 湖澤 成澤 烜燮 護雄 賢錫
- (大田) 宜哲 逸燮 玄根 揆燦 揆善
- (仁川) 在安 相直 相圭 相振 駿求 德求 慶燮 大植 載錫 應茂 載善 炯茂 江水 善輔
- (光州) 在均 在昊 在益 鍾德 觀燮 憲燮 駿燮 禎燮 鎭植 愚慶

- 東原 (蔚山) 隆求 英求 應輔 守輔
- (江原) 萬澤 相汝 相祐 相夏 相鴻 東燮 敏燮 仁燮 載求 載鉉 茂植 東出 正輔 愚弘 成起
- (京畿) 永澤 龍澤 炳澤 相龍 相億 相勳 相英 相弘 相贊 相烈 相國 相華 相厚 相濟 相雨 相大 鍾赫 鍾洪 彥村 康燮 良燮 良燮(김포) 晟求 求亨 應夏 政燮 一用 洵燮 明燮 龍燮 虎燮 胤燮 德燮 榮燮 炯燦 載烈 載萬 載滿 載勳 禹植 載玉 允輔 錫鎔 光輔 元輔 元輔(김포) 完輔 聖輔 昌輔 土銀 宗玉 泳淳 泳秀 文錫 義用
- (忠北) 相昊 相鶴 中來 成來 興燮 鍾燮 載武 載德 載榮 明彦 成輔 揆完
- (忠南) 甲澤 允澤 仲根 仲燮 載令 載重 泓植 永鍾
- (全北) 相泳 相哲 相根 鍾默 鍾根 相貴 斗燮 仁求 載政 載學 哲植 安輔 秀永 秀一 尙道
- (全南) 相錄 行燮 貞燮 正植
- (慶北) 宜石 在叔 琬澤 相國 相燾 相學 載洪 載德 載玉 載浩 載根 南圭 容奭 花鮮
- (慶南) 在主 東燮 吉燮 柱燮 鎭奎 點輔 揆實 正市
- (日本) 廣燮
- (캐나다) 相昱

2013年 1月 1日

青松沈氏大宗會 任員一同

# 癸巳年 謹賀新年



상하  
봉익공중회 회장



의철  
악은공중회 회장



민섭  
도총제공(대중가)중회 회장



상록  
지성주사공중회 회장



정구  
인수부윤공중회 회장



상덕  
안효공중회 회장



성보  
현령공중회 회장



웅섭  
공숙공중중 회장



영구  
내금위공중회 회장



재양  
임피중회 회장



상진  
곡산공중회 회장



장식  
함흥공파중회 회장



두섭  
신천공현공분파중회 회장



영섭  
부사공중회 회장



의용  
악은회 회장



상균  
부산중회 회장



홍섭  
대구중회 회장



재덕  
안동중회 회장



정보  
원주·황성중회 회장



상영  
익산중회 회장



광섭  
일본중회 회장



상욱  
캐나다중회 회장



능광  
청송 유사



원택  
청송 유사



정수  
함열 유사



광택  
안성 유사



양섭  
연천 유사



재룡  
청주 유사

## ◆ 2013년 春季 時享日 案内 ◆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始祖	文林郎公(휘:洪孚)	4월 5일	金	寒食	靑松邑 덕리 산33 보광산	五	三韓 國大夫人(順興安氏)	4월 23일	火	3월 14일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산32-1
	中臺山墓所	4월 5일	金	寒食	靑松邑 부곡리 산1 중대산	六	良惠公(휘:石雋)	4월 29일	月	3월 20일	龍仁市 포곡읍 동마리
二	閭門祗侯公(휘:淵)	4월 20일	土	3월 11일	咸悅邑 남당리 산64-1	六	恭肅公(휘:滄)	4월 9일	火	2월 29일	坡州市 월릉면 영태리
三	靑華府院君(휘:龍)	4월 22일	月	3월 13일	安城市 당왕동 산19-6	王后	昭憲王后	4월 28일	日	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三	配位 金氏	4월 22일	月	3월 13일	安城市 도기동 산64		仁順王后	4월 28일	4월 넷째 일요일	노원 공릉동(康陵)	
四	靑城伯(휘:德符)	4월 24일	水	3월 15일	漣川 미산면 아미리 110		端懿王后	3월 24일	3월 넷째 일요일	구리시(동구릉 內 惠陵)	
四	配位 淸州宋氏	4월 26일	金	3월 17일	淸州市 분평동 산8		淑容沈氏	4월 21일	4월 셋째 일요일	은평구 진관외동	
四	岳隱公(휘:元符)	5월 4일	土	3월 25일	靑松郡 파천면 덕천 景義齋		世宗大王	4월 8일	日	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五	安孝公(휘:溫)	4월 5일	金	寒食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 401		宗廟大祭	5월 5일	5월 첫째 일요일	종로구 종로3가 宗廟	



모범종회 소개

광주부윤공파 선산종회(廣州府尹公派 善山宗會)



심우정  
선산종회 회장

선산종회는 광주부윤공(휘:楡)14세조 할아버님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으며 6세조 공숙공(휘:濬)-11세조 온양공(휘:仁謙)-13세조 休翁(휘:光世)의 후예들

로서 경과(京派)로 선산에 낙향하였다. 종사활동으로는  
-공주(公州) 광주부윤공(휘:楡) 향사와, 공숙공 양부(養父)인 禮江 康主簿公 향사를 주관하고 종인들간 친목을 이루고 있다.  
-1992년 임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회를 구성하여 종토와 종산의 부동산을 모두 종회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2001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사로 공주묘소를 선산해평종산(善山海平宗山)으로 이장하고 종산 일부를 매각하였다.  
-선산의 종원들이 고향을 떠나 대부분 대구에 정착함으로 생활 본거(本據)가

대구가 되어 종회활동과 업무를 대구에서 하고 있다.  
-2012년 4월 종회자산으로 대구 대명동에 4층 건물(금강빌딩)을 매입하고 사무실도 확보하여 종회 업무와 종원의 친목을 다지며 위선사업(爲先事業)과 조상님의 음덕에 보답하기 위해 장학사업 등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주부윤공파 선산종회는 위선사업과 종재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며 심문의 육영사업에도 적극적이다.  
대종회에도 장학금과 종보찬조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모범적인 종회로 전국종회와 종인의 귀감이 되고 있는 종회이다.



▶임원진

- ▷회장 : 우정 ▷총무 : 천석
- ▷이사 : 구석, 규진, 무석, 영태
- ▷감사 : 훈, 정용

종·인·소·개



심민섭 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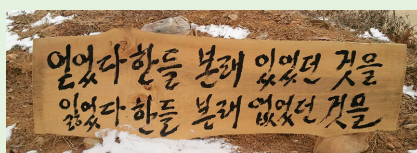
종보의 양념격인 만화 “심영감”을 16년째 연재 중인 심민섭 화백을 탐방하기 위해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홍천으로 재옥(載玉) 종보편집위원과 함께 출발하였다. 홍천 터미널에 도착하니 민섭 일가께서 환한 미소와 함께 반갑게 악수로 맞이해준다. 한 핏줄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심화백이 사는 곳은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홍천강이 보이는 깊은 산골이다. 조선조 개국 이래 조상 대대로 600여 년을 한양에서 살아 온 서울 본토박이건만, 지금에 이르러 처음으로 낙촌하였으니 가히 급격한 가문의 변천사라 할 수 있겠다. 심화백의 자택은 600여 미터 고지 금학산에서 내려다 보면 안동의 회화마을보다 더 구부러진 수태극 문양으로 휘감아 도는 홍천 9경 중에 4경에 속하는 절경의 강변마을이다. 골지리에

서 내려오는 물과 시동리에서 흐르는 두 물이 합치는 머리이니, 강 유역은 광활하고 적막하다. 서울을 박차고 8년 전 이 깊은 오지에 자리 잡은 심화백의 심경은 자택 뜰 앞에 쓰여 있는 나옹선사의 시구가 그걸 대신 한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 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하네.”

마당엔 또 하나의 글귀가 있다. “얻었다 한들 본래 있었던 것을, 잃었다 한들 본래 없었던 것을”



도시를 떠나 시골에 안착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한 평정심의 표현이다.

마당 곳곳에 세워진 민족문화의 상징인 거대한 장승은 마을 장인의 힘을 빌려 직접 세운 것이다. 장승을 모시면서 우리의 열이 빠져 나가는 농촌의 풍경을 우리의 영토로 지키고자 하는 발로라 하였다.

그렇다. 그의 거실에 걸려 있는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늘 고마워 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자”라는 휘호는 단기 4324년

에 쓰여진 것이며, 마당의 정자는 단기 4342년에 세워진 것이며, 자택 대들보 상량문에는 단기 4345년에 입주되어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다. 서기 연호가 아닌 단기 연호를 사용하는 그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거실에 들어서니, 우선 단군 영정이 보인다. 좌우로 조부모, 부모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그 밑에는 어른들의 유품이 진열장에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어 마치 앞에서 살아있는 집안 어른을 뵈는 듯하다. 맞다, 살아계신 조상님을 뵈듯이 그는 매일 아침 정안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예를 올린다.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조상님께 절을 올렸다.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어떻게라도 지켜보려는 절구였다고 심화백은 외친다. 도시에서 살 땐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인성교육 코스로 끊임없이 견학했다고 한다.

심화백의 아버지는 자유당 시절에 정치를 하였다. 직업의 종류가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엔 정치인이 너무 멋있게 보였단다.

요즘 시대 연예인을 보듯 했단다. 심화백도 정치가 꿈이었으며 백지 위에 시사만화를 그리면서 다른 형태의 정치적 소신을 나타냈다.

1980년대 초 주간한국에 독특한 장르

의 만화칼럼 “가라사대”를 연재 선봉적 인기를 끌면서 연극으로 공연되었으며, 그 연극의 주제가가 요즘 이문세가 부른 <광화문 연가>였다. 1987년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등 대권후보들의 정치만화를 한국 최초로 시작하면서 당시 정치 열풍에 가세하기도 했고, 1988년 총선에선 전국 열전지역을 찾아다니며 만화가가 보는 선거풍경을 취재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에서 “심마니”라는 캐릭터로 시사만화를 그리며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다. 노태우 대통령을 “물태우”로 희화한 것도 그가 만들어 낸 대표적 작품 중의 하나다.

독재와 반독재의 대결에서 보수와 진보의 2분법으로 이념대결이 전개되는 과정을 심화백은 소신을 지키며 나름대로 국익의 만화를 그렸다고 자부한다. 치열하게 작품을 하다 보니 집안엔 대머리 유전자가 없는데 본인은 머리가 다 벗겨졌다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 바쁜 와중에 공숙공 후예(종익공13대 후손)인 심화백은 종인의 의리에 충실하고자 1998년 이후 종보에 만화를 연재하여 왔으며, 아마도 손가락이 부서 지지 않는 한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세계 지정학적으로 가장 척박한 조선의 땅에서 중국 대륙에 먹이지 않고 일본에 시달리면서도 이만큼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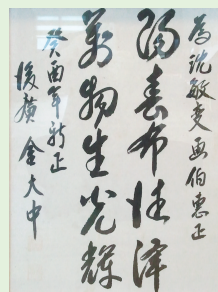
▲ 충효제단



▲ 노태우 대통령 접견



▲ 김영삼 대통령 접견



▲ 심화백에게 김대중 대통령 친필 증정



▲ 심화백 자택 (심화백과 재옥 편집위원)

를 보존하여 인류사에 가장 자랑할 만한 도덕적 국가를 이뤄낸 조선의 조상님을 위한 길이라면 일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심화백의 결연한 의지이다.

신문팔이, 구두닦이, 거리의 악사, 택시기사 등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지면에 다 담기엔 무리다.

그의 거실엔 또 하나의 휘호가 있다.

“물 흐르는 것이 저러하구나.”

이 세상에 수많은 문객들이 흐르는 물을 보며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 냈건만, 공자의 이 한 말씀을 따를 함축언어가 있을까? 심화백은 흐르는 흥천강을 보며 아마도 공자 같은 시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마당엔 백년 넘은 소나무 아래 또 하나의 공자 말씀이 있다.

“겨울이 깊어진 후에야 소나무의 우뚝함을 안다”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힌 흥천 땅에 민첩 일기는 소나무처럼 우뚝 서 있다.

끝맺음

산새 소리에 아침을 열며 자연을 벗삼아 작가 활동을 하시는 민섭 화백님! 심문의 보배이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심화백님의 고귀한 작품들은 하늘의 해와 별과 같이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2013년 1월 11일

■ 대담

- 심재서 : 홍보편집인/대중회 문화이사
- 심재욱 : 홍보편집위원/대중회 이사

## 올바른 호칭(呼稱)이 곧 예절입니다



沈 秀 永  
홍보편집위원  
대중회 이사

호칭(呼稱)에는 이름(名), 자(字), 호(號), 시호(諡號), 사시(私諡), 택호(宅號)가 있습니다.

**첫째,** 이름(名)은 호적에 올리는 순간 官名이 되며,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혹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부를 때는 비칭(卑稱)으로, 본인이 윗사람에게 자기를 낮출 때는 겸칭(謙稱)으로 썼으며, 어른의 이름을 묻고 답할 때는 품격이 높은 격식에 따라야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존시問>자네 어른의 함(銜)자는?

- 저희 아버지의 함자는 ○자 ○자입니다.

<사망시問>자네 어른의 휘(諱)자는?

- 저희 아버지의 휘자는 ○자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심지어 존속(尊屬)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부·조(父·祖)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본제입납(本第入納) 또는 본가입납(本家入納)이라고 썼습니다. 이와 같이 윗사람의 이름은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자(字)는 남자는 20세가 되면 관례(冠禮)를 하고, 여자는 혼인을 약속하면 계례(笄禮)를 하는데 이때 자(字)를 지어 줍니다.

관례를 할 때 빈(賓:주례자)이 자(字)를 지어주기도 하지만 관례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字)를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사(出仕)할 수 있는 성년이 되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자(字)를 지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호(號)는 가장 보편적으로 불리어 지는 칭호로서 연령이나 성별, 지위에 따라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지어 쓸 수 있었으며, 예를 들면 김구(金九), 백범(白凡), 이항(李滉), 퇴계(退溪) 등 호(號) 밑에 공(公)을 붙이지 않고 통칭(通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호(號)는 누구나 허물 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칭호로서, 서양에서는 필명, 익명, 가명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호를 사용하는 대신 김영삼 대통령을 YS로 이명박 대통령을 MB로 흔히 호칭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본다면 품위 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넷째,** 시호(諡號)는 나라에 공적이 있는 고관이나 왕이 죽으면 죽은 후에 국왕이

붙여주는 칭호가 시호(諡號)입니다. 심은 안효(安孝), 이순신 충무(忠武)가 이에 해당하며 벼슬을 하지 않았던 처사(處士)들에게 시호를 줄 때는 증직(贈職)한 후에 시호(諡號)를 주었습니다. 벼슬을 하지 않았던 서경덕(徐敬德)에게 우의정(右議政)을 추증(追贈)하고 문강(文康)의 시호를 주었고, 조식(曹植)에게 영의정(領議政)을 증직(贈職)하고 문정(文貞)의 시호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호를 받은 분을 모든 백성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호에 공(公)이라는 존칭어를 붙여 부르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라 사료됩니다.

**다섯째,** 사시(私諡)는 학덕(學德)과 공적(功績)이 뛰어난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시호(諡號)를 받지 못한 경우에 문도(門徒)나 향인(鄉人)들이 시호를 지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택호(宅號)는 아랫사람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성인(成人)의 이름대신 누구나 평범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칭호(稱號)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승택(政丞宅), 판서택(判書宅) 장관택(長官宅), 교장택(校長宅) 등 관직에 택(宅)을 붙여서 택호(宅號)로 사용하기도 하며, 관직이 없는 집은 부인(夫人)의 친정(親庭), 지명(地名)을 따서 택호(宅號)로 사용했습니다. 가령 안동서 시집은 집은 안동택, 서울서 시집은 서울택 등으로 호칭했으며, 관직 또는 지명에

「어른」이란 말을 붙여 택호(宅號)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승지어른, 군수어른 등으로, 부인의 경우는 군수댁 할머니, 안동댁 아주머니, 춘천댁 안어른 등으로 경칭(敬稱)하였습니다.

옛날에는 군주(君主) 혹은 부모나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대불경(大不敬)으로 다스렸습니다. 심지어 군주나 성인의 이름으로 쓰인 글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의 이름인 공구(孔丘)가 문장 속에 나오면 공구(孔丘)를 공모(孔某)라고 읽고 대구(大丘)를 공구(孔丘)의 구(丘)와 겹치는 까닭으로 대구(大邱)로 표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존명사상(尊名思想)에서 나온 중국의 피휘제도(避諱制度)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조(顯祖)의 유훈(遺訓)을 받들고 공적을 기리기 위해 호에 공(公)을 붙여 악은공(岳隱公) 돈제공(遁齋公)으로 호칭하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올바른 호칭(呼稱)이 곧 예절입니다.

2013년 1월 10일

- \* 함자[銜字] - 남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
- \* 휘자[諱字] - 돌아가신 어른의 생전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
- \* 처사[處士] -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초야(草野)에 묻혀 사는 선비.
- \* 사시(私諡)를 받은 휘 익룡(翼龍:1732~1784). 자는 이오(而五), 호 요산당(樂山堂). 효성이 지극하여 슬효(述孝)라는 사시(私諡)를 사림에서 받음. 저서 요산당집(樂山堂集)이 있음.

## 삶의 유머

### 백정이야기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줏간을 내었습니다.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중 한 양반이 그 백정에게 반말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애 상길아, 고기 한 근 나오”

“그러지요”

박상길은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서 주었습니다.

함께 온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하지만 나이든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기가 거북했습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예 고맙습니다.”

기본 좋게 대답한 박상길은 선뜻 고기를 잘라주는데, 처음에 산 양반이 보니 자기가 받은 것보다 갑절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 양반은 화가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냐?”

그러자 박상길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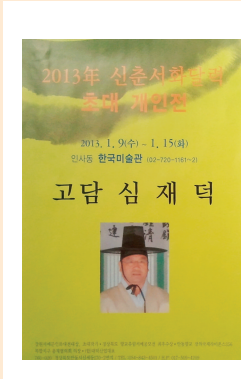
- 대중회 관리부장 -

## 안동중회 재덕(載德) 회장 작품전시 참관

한국미술관(인사동)에서 2013년 1월 9일(수) ~ 1. 15일(화) 전시하는 2013년 신춘서화달력 초대 개인전에 대중회집행부, 이사와 함께 관람하였다. 안동 재덕 회장께서는 회사경영에 바쁘신 중에서도 서예에 조예가 깊으셔서 그동안 많은 서예전에 출품하여 입상과 대상을 받으셨다. 대중회 의탁 회장님께서서는 난(蘭)을 보내 재덕 회장의 작품전시를 축하 하였고 집행부 임원은 재덕 회장의 명필을 감상하였다.

### ▶재덕회장 경력

- 강원서예문화대전 대상 초대작가
- 경상북도 향교유림서예공모전 최우수상
- 안동향교 장의
- 국제라이온스356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 (합)대덕산업 대표



## 중회탐방 시리즈-(7)

### 현령공중회(縣令公宗會)

#### 중회탐방기(7) - 현령공중회(縣令公宗會)



沈聖輔  
縣令公宗會 會長

- 일시: 2012년 11월 11일(일) 12시
- 장소: 안동시 풍천면 월애마을 종택(宗宅)

- 탐방자: 대종회 문화이사

#### 1. 현령공중회 구성

##### 1) 연혁

공의 휘(諱)는 천주(天柱)요, 악은공(岳隱公)의 2자로 선친(先親)의 유훈(遺訓)을 따라 조정(朝廷)을 멀리하고 초야(草野)에 묻혀 지내셨기에 행적(行跡)은 고사하고 공의 호(號)조차도 전하는 바가 없었던 차에 淸溪(諱:金璣)선생이 공의 8대손 參奉(諱:光佐)에게 보내은 시창(詩章)에서 알게 되었다.

이런 귀중한 자료에 따라 察訪(諱:東燮)公께서 당시 종과의 화수계(花樹契)에서 失傳한 현령공의 설단을 계획하였으나 1924년 서거로 중단된 후 그 次子 진사(進士)公(휘:載洪)께서 재차 추진하여 1928년 宗派 거주지인 안동 豊川面 月涯洞에 壇域을 設定하고 1931년 辛未에 착수하여 安東, 禮安 地方 등 경북 북부에 거주하는 후손 載漢, 鎔燮, 章漢, 載洪 등이 뜻을 모아 壇域을 築造하고 壇碑를 세우고저 각처 자손들에게 趣旨(花樹契帖序)를 발표하고 모금하여 壇碑까지는 조성 하였으나 당시 일제 강점기 혼란기라 設壇 告由의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내기를 長長 27년의 세월이 지났다가 1957년 4월에 設壇을 건립하고 追遠 報本의 告由禮享을 올리고 발족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교통사정과 통신시설이 열악하여 안동 인근지역 자손과 유림(儒林)에서만 모여 해마다 음력 10월 5일에 봉향하여 왔으나 1990년 경남중중에서 대표 몇분(東燮, 榮一, 三燮, 在運 등이 족보만 보고 生面不知의 安東 月涯를 방문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서 다음해인 1991년 음력10월 5일에 회칙을 만들고 명칭을 오늘날의 현령공파중회라 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150여 명의 자손이 모이는 奉享之處 壇域을 오르는데 진입로가 부실한 것을 蔚山市 無去洞 大用氏가 자기 문중과 상의하여 壇所 바로 밑 田 200여평을 매입하여 우리 파중회에 기증 하였기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壇碑를 改碑하고 원래 壇碑는 左側 上座에 모시고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하여 오늘날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우리 현령공파의 집성촌으로는 안동시의 월애(月涯)와 함천, 진주, 함안(군북면 수곡리), 의령 등이다.

##### 2) 종원과 조직

###### 가) 종원

縣令公의 子孫들은 현재 安東, 禮安, 英陽, 奉化, 陝川, 光陽, 宜寧, 晉州, 咸安, 山淸, 蔚山, 寧越 等地에 世居하고 있으며 各地域 代表 260여분이 宗會 任員으로 宗會 發展을 爲하여 活躍 하고 있다.

###### 나) 조직

▷고문: 기용, 우영, 상철, 의조

- ▷자문위원: 장택, 의용, 상보, 원기, 재희, 규태 상용, 상호, 군섭, 재화, 규범, 상화, 동섭, 옥섭 채수, 주종, 영수, 재길, 상언, 윤보, 대용, 주열
- ▷회장: 성보(聖輔)(대종회 초대 문화이사셨던 故 載鎬 이사님의 장자)
- ▷부회장: 광보, 대용, 대용, 재화, 영주, 한섭, 용진 기조
- ▷감사: 현보(서울), 현보(경남)
- ▷총무·재무: 정용 ▷이사: 규만 외 201명

##### 3)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현령공 추향일 개최

#### 2. 현령공(휘:天柱) 행적(行蹟)

縣令公의 휘는 天柱이고, 岳隱公(휘:元符)의 둘째 아드님이시다. 호(號)는 野逸인데 高麗末에 縣令을 지내셨다.

公은 5兄弟를 두셨는데 첫째가 判官 世叔이고, 둘째가 世龍, 셋째가 通德郎 世弼, 넷째가 世基, 다섯째가 牧使 世才이다. 이들은 李成桂의 禍를 避하여 落鄉을 하였는데 世叔과 世才는 義城, 安東, 禮安 등지로 몸을 피하였고 世弼 世基는 慶南 宜寧, 陝川 등지로 피하였다. 그뒤 光廟朝에 牧使 世才의 玄孫 希恬이 學生의 身分으로 義禁府에 “今年에 凶年이 들고 우리가 大關門을 震動 하니 即時 上王을 復位 하면 이러한 災殃이 살아질 것이다”(沈希恬學生義禁府啓希恬言今年農事不登雷震關門復位上王則天變可弭斬之:實錄 莊陵志에서)고 上啓 하고 端宗 復位 運動을 하였다가 極刑을 당하고 家率들은 祖上의 神主도 守護 하지 못하고 夜半에 逃走하다가 某處 山에 묻고 자취를 감추었다.

이리하여 墓所까지 失傳하고 분적을 모두 잃어 버려 上考 할 길은 업으나 집안에 傳承 되어오는 말에 의하면 義城 新平 땅을 거쳐 安東, 月涯, 禮安 등지에 定着 하였다고 한다. 공의 20世孫 東燮氏 察訪公 遺稿 “月塢遺稿”에 따르면 月涯 마을 入鄉祖는 道昌 이라고 한다. 그리고 月塢軒 古宅을 建立하여 慶北道 文化財 資料 330號로 지정되었다.

察訪公의 叔父 相浩公이 行嘉善大夫 中樞副使를 歷任하여 公의 高祖父까지 贈職을 除授 받아 高祖父 聖國은 贈 通訓大夫 掌樂院正, 曾祖父 松源은 贈 通政大夫 工曹參議, 祖父 學麟은 贈 戶曹參判이다.

公은 일찍이 行銀溪察訪에 오르셨으나 當時 世上萬事가 漸漸 正道를 벗어나 根本이 허물어지니 벼슬에 뜻이 없어 辭退하고 鄉里에 돌아온 公께서 月塢軒 古宅과 映樂齋를 創建하고 後學養成에 專念하였으며, 失傳한 祖上의 根本을 되세우고저 하였으나 뜻을 펴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둘째 아드님 進士 載洪公께서 先親의 뜻을 이어 받아 오늘날의 縣令公 祭壇을 세워 追遠之誠을 다하고 子孫이 함께 모여 崇朝 敦睦의 터를 닦아 놓았다.

#### 3. 송조돈족(崇祖敦族)사업

##### 1) 연중 봉향행사

해마다 처음에는 음력 10월 5일을 봉향 행사일로 정하여 행사 하여 오다가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직장인의 참사가 어렵게 되어 매년 음력 9월 마지막 일요일로 정하여 봉향하고 있다.

##### 2) 후손 친목행사

현령공파중회로 발전한 1991년 부터는 해마다 격년으로 진주·안동에 모여 1박 2일로 인근 명승지 탐방 등으로 친목행사를 해왔으나 근년 몇 해 동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잠정 중지되고 있음.

#### 4. 현령공파중회의 자랑

##### ▷ 近世 家門을 빛낸 宗人

##### 1) 新幹會 中央 幹事를 지낸 故 沈揆夏(1906~1976) 독립운동가

현령공파의 주손으로서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일제 강점기 때 이상재, 안재홍, 조병옥 등과 신간회를 조직하여 중앙 간사를 지냈으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6년 7월 월오현 고택에서 동아일보사 6개 군의 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기자단을 조직하여 일제의 잔악상을 취재하였으며, 1927년에는 김국진, 권태석과 함께 신간회 안동지회를 조직하여 월오현고택을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삼았다.

##### 2) 故 沈聖澤 檢事長

고등고시 2회에 합격하여 검사에 임관된 후 각 지방 검사장과 대검검사를 역임하였으며, 바쁜 공직중에도 송조돈목정신이 투철하시어 현직에 계시면서 악은공중회, 대구중회, 대종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 宗사업적은

가) 5처묘소인 청송, 함열, 안성, 연천, 청주 위토를 대종회로 등기 완료

나) 2세조 함열 영모재 개수 및 4세조 악은공 재각(경의재) 신축

다) 대종회 회관구입(세운상가 단독주택 1채)

라) 5처묘소 춘·추 향사일을 현행대로 개정

마) 안효공중회의 위토송사건 승소에 많은 기여, 양혜 공묘역 보존에 기여 등 종사재산을 보존하는데 크나큰 공적을 남겼다.

※ 故 심성택 검사장님은 대종회 現 相和 상임부회장의 부친이시다.

##### 3) 故 民正黨 事務總長을 지낸 沈明輔 議員

안동 월애에 정착한 현령공파의 일부는 1890년경에 강원도 영월로 이거를 하였는데 이 가운데 심명보 의원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3선 국회의원을 하였으며, 민정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천안 독립기념관 건립을 발의 추진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 4) 總務處長官을 歷任한 沈宇永 博士

신간회의 간사를 지낸 심규하의 조카로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문민정부 때 총무처장관 및 악은공파 회장을 역임하고 안동 국학진흥원 초대 원장을 맡아서 국학 진흥에 많은 공헌을 함과 아울러 바쁜 공직생활중에서도 시조묘소 진입로 확장과 콘크리트 포장 등 종사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 5. 중회 역점사업

앞으로 중단된 후손 친목행사를 부활하여 자손들의 송조돈목 정신을 선양 발전코저 함.

#### 6. 현령공 후손들에게 바램

##### 1) 성보회장

나무 가지가 천 가지라도 한 뿌리에서 나왔고 시냇물이 만 갈래라도 한 줄기로 이어져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한 조상 밑에 한 줄기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아무리 한 뿌리 한 줄기로 이어져 있어도 서로를 알지 못하면 남과 다를 바 없으니 봉향, 친목 행사에 많이 참석하여 친목을 도모해 주기를 바란다.

#### 7. 대종회 건의사항

1) 대종회에서는 지파중회나 지역중회 행사에 적극 참여해달라.

#### 8. 기타 의견 교환

1) 의탁회장님의 장학사업은 심문의 인재육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 탐방취재일이 현령공 할아버님 추향일도 불구하고 바쁜신 중에도 탐방취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성보 회장님과 임원진, 종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 대종회 문화이사 -



▲ 중회탐방 진행 장면

# 정성어린 장학금·종보찬조금에 감사드립니다

- 대종회 재무·문화이사 -



**심 영 구**  
(울산)내금위공종회 회장  
대종회 이사

(울산)내금위공종회(內禁衛公宗會)는 11세조 휘 : 황(滄) 할아버님을 종시조로 모시고 있으며, 응보(應輔) 고문께서 오랫동안 회장님으로 종사를 활발하게 이끌어 오시다가 2011년 현 영구(英求) 회장님이 취임하셨다.

내금위공종회는 그간 대종회 업무에 많은 공헌과 2010년도 울산에서 뿌리교육 시는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해 주셨고, 250여 명이 교육에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지원해 주셨고 이번에 또 장학금으로 거금 5백만원과 종보찬조로 1백만원을 찬조해 주셨다.

내금위공종회의 정성어린 찬조금은 심문의 영재육성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종회 집행부는 내금위공종회의 깊은 뜻을 받들어 더한층 종사에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홍 섭**  
대구종회 회장  
대종회 이사  
신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대구종회는 1970년도 종회가 결성되어 대종회보다도 역사가 오래된 선구적 종회이다.

당시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하신 성택(聖澤)일가를 초대회장(현 대종회 상화 상임부회장의 부친)으로 추대하여 발족한 이후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모범종회이다.

70년도 정기총회 등 모임시는 600여 명까지 일가들이 모였으며, 현 홍섭 회장님은 40여 년간 적극적으로 종사업무에 참여하시고 대종회 정기총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며 대종회에서는 종원, 총무, 부회장을 거쳐 현재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훌륭한 일가이시다. 그리 넉넉하지 못한 종회 재정임에도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시고 거금 5백만원을 찬조하여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구종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는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원 연회비 안내

- 명예회장 : 50만원
- 회장 : 3백만원
- 부회장 : 30만원
- 감사 : 20만원
- 이사 : 5만원

1) 임원회비는 이사회(3월하순), 정기총회시(4월하순)에 입금시켜 주시면 은행 왕래 수고와 송금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집행부에서 행정처리에도 간편하므로 협조부탁 드립니다.

2) 이사회비 2회 미납시는 임원 의사가 없으므로 간주하여 임원명단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기 회비·찬조금 내역은 2012년 11월~2013년 1월 20일까지의 입금 내역입니다.

## 任 員 會 費

100,000	병택(경기), 덕구(인천), 양섭(과천), 선보(인천) 상훈(김포)
50,000	상우(경기), 준섭(광주), 재호(광주), 동원(광주) 현섭(광주), 재익(광주), 상균(부산), 상용(경기) 화선(경북), 재근(경북), 강수(인천), 형구(서울) 재중(충남), 원보(경기), 정시(경남), 재선(인천) 완택(경북), 능광(경북), 진식(광주), 인구(경기) 광보(서울), 재영(부산), 무식(강원), 현보(서울) 우섭(강원), 준구(인천), 재룡(충북), 재학(전북) 성보(경기), 안보(전북), 동섭(충청), 완규(서울) 용진(서울), 영택(경기), 수일(전주), 재금(서울) 흥섭(청주), 재홍(서울), 상철(전북), 의경(부산) 웅섭(서울), 점보(마산), 규실(마산), 정수(전북) 강섭(김포), 희섭(강원), 중근(충남), 재중(충남)
50,000	양섭(김포), 정섭(장성), 재구(강원), 상경(서울) 중근(충남), 정섭(서울)

## 獎 學 金 贊 助

5,000,000	내금위공종회(회장:영구) 대구종회(회장:홍섭)
1,000,000	청심회(회장:재안), 청주종회(회장:재룡)
500,000	재규(광주), 곡산공종회(회장:상진), 광주청광회(회장:재규)
300,000	혁규(서울)
100,000	란수(서울)

## 宗 報 贊 助

1,000,000	내금위공종회(회장:영구) 공숙공종중(회장:웅섭) 부사공종회(회장:영섭) 풍덕공파(회장:재영/대종회고문)
500,000	곡산공종회(회장:상진)
300,000	인천종회(회장:응무)
200,000	청주종회(회장:재룡) 전북청송회(회장:상근) 만중공종회, 동섭(진주)
100,000	전남여수종친회, 도사공종회 장사랑공파종회, 생원공(11세조 諱:蓉)파종회 남서울종회(회장:재관), 익모종회 완택(충남), 영섭(김포), 효식(서울), 규춘(경기) 성섭(서울), 문진(경기), 우식(경기), 재철(충남)
50,000	학영(남원), 상협(서울), 재학(전남) 상만(서울), 재상(부산), 승길(경남) 상경(서울), 두용(서울), 재옥(서울)
30,000	상윤(미상), 태식(곡성), 범구(인천)
20,000	수진(동대문)
10,000	명래(경기)

## 2012년 예산 對 실적

구 분	예 산	실 적	달성률
종보찬조	32,000,000원	30,640,000원	96%
임원회비	18,200,000원	18,150,000원	100%
장학금	2,000,000,000원	34,750,000원	17%

## 50만원 이상 종보·장학금 찬조 종인(2회) 사진게재

 심 재 규 광주청광회 회장 장학금찬조 100만원 2013. 1	 심 재 영 풍덕공파종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13. 1	 심 영 섭 부사공종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13. 1	 심 재 룡 청주종회장 장학금찬조 100만원 2013. 1	 심 상 진 곡산공종회장 종보/장학찬조 100만원 2012. 12	 심 재 안 청심회 회장 장학금찬조 120만원 2012. 12	 심 웅 섭 공숙공종중회장 종보/장학찬조 150만원 2012. 12
 심 상 덕 안효공파종회장 종보찬조 1천만원 2012. 11	 심 광 섭 일본종회장 종보찬조 1백만원 2012. 11	 심 주 섭 대종회 상화 부회장 長子 종보찬조 50만원 2012. 11	 심 원 섭 대종회 상화 부회장 次男 종보찬조 50만원 2012. 11	 심 성 보 대종회 재서 문화이사 長子 종보찬조 50만원 2012. 11	 심 언 촌 대종회 이사 종보찬조 60만원 2012. 11	 심 재 근 대종회 총무이사 종보찬조 50만원 2012. 9
 노 병 선 대종회 상화부회장 妹夫 장학금찬조 50만원 2012. 9	 심 윤 경 대종회 상화부회장 妹 종보찬조 50만원 2012. 9	 심 의 용 약은공종회 약은회 회장 장학금찬조 1백만원 2012. 9	 심 의 철 약은공종회장 장학금찬조 1백만원 2012. 9	 심 우 영 대종회 지도위원 장학금찬조 1백만원 2012. 9	 심 장 식 함흥공종회장 장학금찬조 1천만원 2012. 8	 심 두 섭 신천공파 현공분파종회장 종보찬조 1백만원 2012. 7

관향(貫鄉) 소식

▼자료제공



沈南圭 편집위원 대중회 이사

청송 청년회 및 보광회 신년 하례 모임 개최

청송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청·장년층 종인(宗人)들의 모임인 청송 청년회(會長 沈庄燮)의 운영위원 및 군청 산하 공직자 모임인 보광회(會長 沈南圭)의 신년 하례 모임이 지난 1월 3일 오후6시 청송읍 금곡리 소재 푸른솔한우식당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모임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회원 상호간 새해 덕담(德談)을 건네며 계사년(癸巳年) 한해의 새출발을 다짐했다.



▲ 청송지역 청년회 및 보광회 회원들이 신년 하례 모임에서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있다.

「덕우회」 신년 모임 개최

청송 덕천마을 출향 종인(出鄉 宗人)들의 모임인 「덕우회(德友會)」 2013년도 정기총회 겸 친목 모임이 지난 1. 12 ~1. 13일 간 안동시 도산면 소재 국학문화회관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지역에 머무르면서 한국국학진흥원 내 유교문화박물관과 인근의 도산서원, 안동민속박물관 등을 두루 둘러보면서 모처럼 신년 새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덕우회 회원들이 지난 1월 13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내 유교문화박물관을 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종사 단신(短信) 및 종인 동정(動靜)

◆ 안동대 심재창 교수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안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심재창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멀티미디어학회가 주관한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에서 학술위원들의 공정한 심사 에 의해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청송 심능광 유사(有司) 長女 문희씨 울산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임용

대중회 청송지역 유사(有司)로 재임하는 심능광(能光)이사의 장녀 문희(文姬)씨가 지난해 12. 27일자 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로 임용되었다.

일가들의 단합모임

안동종회 2013년도 정기총회 겸 종친 단합대회 개최

안동종회(회장 심재덕)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종친 단합의 행사가 지난 1월 19일(토) 오전 11시 안동시 녹전면 소재 대덕산업연수원에서 안동지역 종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심재덕 회장의 인사와 주요 참석내빈 소개, 효부·효자 시상 및 90세 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중식 후 2부 순서로 노래자랑과 푸짐한 경품 추첨 등으로 모처럼 종친 가족의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기도 했다.



▲ 2013년도 안동종회 단합대회 시 심재덕 회장이 효부상을 시상 장면

祝 승진



심상준 춘천종회 심상준 회원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장으로 승진

祝 박사학위



沈善兒(燮字) 정·고·부 화수회 심상중 회장 자녀인 선아양이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2013년 2월 14일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訃 告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沈載文 前) 경북 선산부군수 2012년 12월 31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88세

공 지 사 앙

- ▶이사, 사망 등으로 종보수신 주소 변동 시 대중회로 변경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1일 인터넷족보 수단 접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인터넷족보 등재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년 등재 예정)
▶2013년 이사회(3월 하순)와 정기총회(4월 하순) 시는 배지를 날개로 판매합니다.
▶각종 찬조금 영수증은 은행송금증으로 대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 대중회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찬조시는 필히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재무이사)
▶3월 종보는 100호 특집으로 14면이 발행되고, 80명의 장학생 사진이 게재됩니다.
▶회비 및 각종 찬조금 입금 후 대중회로 전화해 주시기바랍니다.(전국 다수의 동명이인 존재로 혼선이 발생합니다.)
▶종회탐방 계획
• 종보100호(2013년 3월 발행) (과주시) 공숙공종중(회장:雄燮)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회는 대중회 문화담당에게 신청바랍니다.
▶전국종인들에게 모범이나 귀감이 되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종인분이 계시면 대중회 문화담당에게 알려주시면 종인탐방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종회 임원개선 명단

- ◎ 전북종회 임원명단
▷고문 : 의두 상헌 재명 ▷명예회장 : 상영
▷회장 : 재정 ▷부회장 : 상중 상만 안보 수영
▷감사 : 재오 상도(규) ▷총무 : 상근
▷재무 : 두섭
• 전주·완주 회장 : 안보 •군산·김제 회장 : 수영
• 익산 회장 : 상영 •정읍·부안 회장 : 상중
•임실·남원·순창 회장 : 상만
◎ 인천종친회 임원명단
▷고문 : 정구 재갑 기혁 상길 윤구 상규 재관 상진
▷자문 : 재면 재안 승구 윤섭 재중 강수
▷회장 : 응무
▷부회장 : 건섭 창섭 명구 흥보 상천
▷감사 : 묵환 상국
▷총무이사·총무 : 순식 형섭
▷재무이사·재무 : 영섭 대한
▷이사 : 창구 외 29명
◎ 공숙공 양부 강주부공 봉향회 임원명단
▷고문 : 상팔 달섭 두섭 영택
▷자문위원 : 상덕 상영 재열 정보
▷회장 : 상직
▷부회장 : 주택 상열 웅섭 우정 구석
▷감사 : 재옥 재근
▷운영위원 : 광섭(공숙공) 재석(이경공) 흥섭(효창공)
길섭(수찬공) 명섭(종익공) 상경(신천공)
양섭(수운판관공)
▷총무 : 종복
◎ 청송회(울산) 임원명단
▷회장 : 인옥(식) ▷총무 : 규백

| 송 | 금 | 안 | 내 |

任員會費·宗報贊助·獎學贊助·族譜代金 등 입금구좌
• 청송심씨대중회
농협: 301-0107-5873-71